

K-water not fichel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사업 입찰공고 (10.21)

K-water 하반기 대형공사인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가 10월 21일 입찰공고되었습니다. 당초 단일공사로 추진되었으나 사업계획 조정을 거치면서 3개 공구로 분할되었고 우선 1공구와 2공구를 시행합니다.

1공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 일원에서

총1.87㎢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금액은 1,196억원(추정가격 898억원) 규모입니다.

2공구도 도로 및 포장 등을 포함하여 총 1.86㎢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추정금액은 1,212억원(추정가격 883억원) 규모입니다.



특이한 점은 계약체결 이후 도급공사비 지급시에 도급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대금으로 우선 상계처리하는 '대물변제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공구의 경우 도급공사비의 30%가 대물변제 대상으로 대상토지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2개 블록 총 4만 2,102㎡ 규모로, 공급용도는 85㎡ 초과 연립주택용지입니다. 2공구 역시 1만7101㎡ 규모 의 연립주택용지 1개 블록이 대물변제 대상으로 공사비로는 20% 수준 규모입니다.

입찰일정은 11월 7일까지 PQ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12월말 가격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입찰부터 종심제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입찰금액 상위5개사에만 종합심사 서류를 접수 받습니다.

문의 : 조원제 과장(042-629-2615)



K-water not fichel



계약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 줄입니다

앞으로 K-water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게 될 계약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K-water는 그간 심사 오류 최소화를 이유로 직접 제출받던 계약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기술용역(5억원 미만)은 '사후 PQ심사'를 의무화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의 경우 심사 서류를 입찰참여 업체 모두에게 받던 것을 가격점수 상위 5개사로 축소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PQ(15종)와 종합심사(16종) 서류 제작 및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업체별 연간 2.6억원) 심사 및 낙찰자결정 기간이 빨라질(평균 10일 단축)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실적제한 입찰의 경우 참가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실적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적증명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송부로 갈음하고 원본은 낙찰자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종합심사' 및 용역PQ심사를 100% 전자화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와 시스템 연계 및 업체별 실적 DB구축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로 입찰 참여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크게 줄여 기업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김형진 과장(042-629-2618)



K-water 加雪 뉴스亚巴



현장부서 계약담당직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K-water 전부서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현장부서 찾아가는 계약워크숍'이 개최됩니다. 10월 17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각 지역본부별로 열립니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자 업무 가이드라인 (9월초 시행)'을 다시 확인하고 케이스별 착안사항에 대해 토의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계약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입니다.

문의: 조원제 과장(042-629-2615)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Ⅰ.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한 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공공구매론)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I.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수시신청 가능

Ⅲ.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543, 2547



K-water not fichel



K-water 물분야 기술특허 6건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K-water는 지난 10월 24일 중소기업 지원 및 물분야 신규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보유중인 물 분야 기술특허 중 6건을 국내 중소기업 9개사에 무상양도했습니다. 이를위해 기술나눔 대상 특허 총 52건을 K-water 홈페이지 및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거래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양수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양도한 특허는 '물 관리 지능형 경보시스템'과 '수문관측장비 보호용 부유물 차단장치' 등 총 6건입니다.

특허는 무상양도 받은 중소기업은 ㈜에이헥사곤, ㈜테크인, 바이오릭스 ㈜, ㈜서광중공업, ㈜엠티테크, ㈜제일운용기술, ㈜이엔씨, 새날, 아우스케미컬 등 9개사입니다.

하나의 특허에 2개 기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지분을 공동 배분했습니다.

K-water는 올해 개소한 물산업지원센터와 연계, 각 기업에 기술멘토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해 특허를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술관리처(042-629-3354)